

#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보고서

2007. 12.



---

---

# 목 차

---

---

I. 조사 개요 .....	1
① 조사 목적 .....	2
② 조사 설계 .....	2
③ 조사 내용 .....	3
④ 응답자 특성 .....	4
II. 조사 결과 요약 .....	5
III. 조사 결과 분석 .....	16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17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17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19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21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22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22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24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26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28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28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29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31

첨부 1. 기초통계표

첨부 2. 조사설문지

---



## **Contents**

---

### **I 전체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 1. 조사 목적

### 조사목적

- 본 조사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및 경험 그리고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방안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추진됨.

## 2. 조사 설계

세부 조사 설계	
① 조사대상	●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② 조사지역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③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Telephone Survey)
④ 표본추출	● 전국 만20세이상 인구의 지역, 성, 연령별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추출 (Proportional Quota Sampling)
⑤ 응답자 선정	● 인명부 전화번호 DB를 이용한 체계적 추출
⑥ 유효표본	● 총 1,000명 ● 95%에서 최대 $\pm 3.1\%$
⑦ 조사시점	● 2007년 11월 26일 - 12월 25일
⑧ 조사기관	● (주)월드리서치

### 3. 조사 내용

평가 항목	'01년	'06년	'07년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정도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
○ 마약류 사용 경험	○	○	○
○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
○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
○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참여의향			○

## 4. 응답자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성	남자	493	49.3
	여자	507	50.7
연령	20대	215	21.5
	30대	236	23.6
	40대	228	22.8
	50대이상	321	32.1
지역	서울	218	21.8
	부산/경남	165	16.5
	대구/경북	109	10.9
	인천/경기	275	27.5
	광주/전라	103	10.3
	대전/충청	98	9.8
	강원/제주	32	3.2
도식규모	대도시	479	47.9
	중소도시	424	42.4
	군지역	97	9.7
학력	중졸이하	180	18.0
	고졸	355	35.5
	대재이상	465	46.5
직업	화이트칼라	177	17.7
	블루칼라	87	8.7
	자영업	172	17.2
	주부	356	35.6
	학생	107	10.7
	무직/기타	101	10.1
소득	100만원이하	114	11.4
	101-200만원	141	14.1
	201-300만원	248	24.8
	301-400만원	187	18.7
	401만원이상	173	17.3
	무응답	137	13.7
장기해외체류경험	있음	61	6.1
	없음	939	93.9



## *Contents*

---

### Ⅱ 조사 결과 요약

##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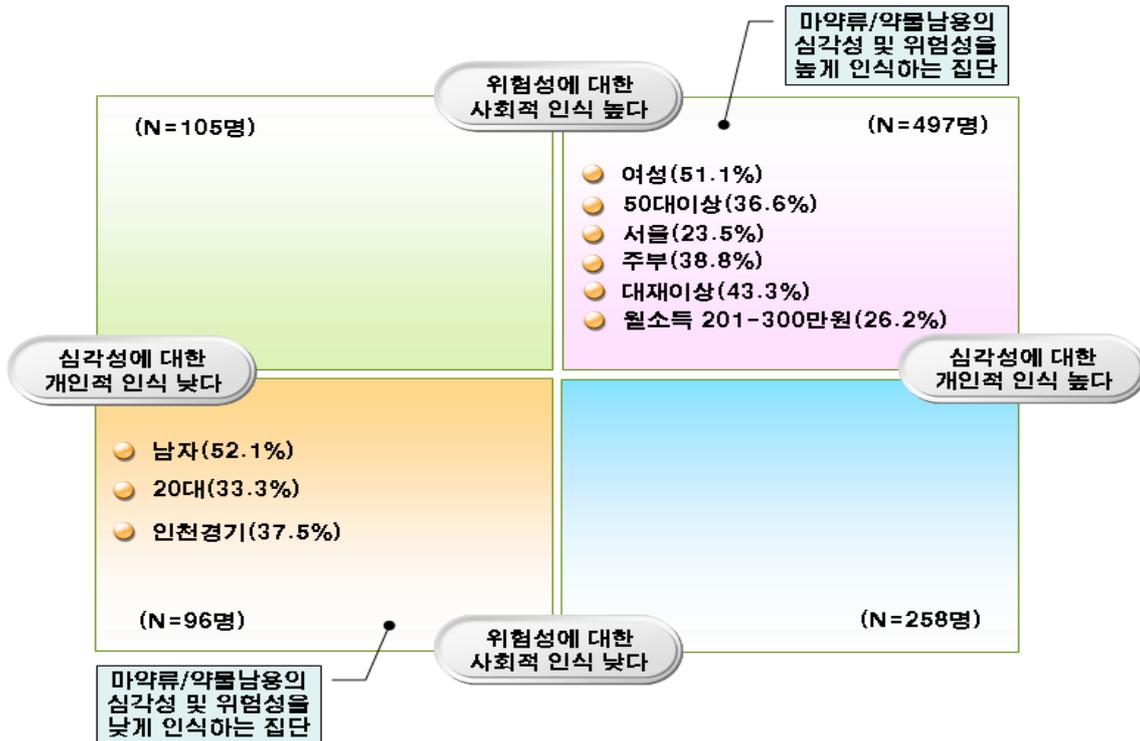
###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 일반국민의 60.9%는 ‘사회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5.7%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지난 2006년도 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증가(▲3.0%p)한 것으로 평가됨.
  - 2006년 57.9% → 2007년 60.9%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2001년(%)	2006년(%)	2007년(%)	Gap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11.5	13.7	18.5	▲3.0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43.4	44.2	42.4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42.3	37.2	35.0	▼5.2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2.3	3.7	0.7	
무응답	0.5	1.2	3.4	

-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7명 이상(78.4%)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은 20.6%로 나타남.
- 그러나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0.9%p)인 것으로 나타남.
  - 2006년 77.5% → 2007년 78.4%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2001년(%)	2006년(%)	2007년(%)	Gap
매우 심각하다	25.2	26.1	25.3	▲0.9
다소 심각하다	50.7	51.4	53.1	
별로 심각하지 않다	21.4	20.1	19.5	▼1.1
전혀 심각하지 않다	1.5	1.6	1.1	
무응답	1.2	0.8	1.0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높게 인식하는 집단**’(N=497)은 여성(51.1%), 50대이상(36.6%), 서울(23.5%), 주부(38.8%), 대재이상(43.3%)인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N=96)은 남성(52.1%), 20대(33.3%), 인천/경기(37.5%) 지역 거주자로 나타남.

##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 대다수(91.4%)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여성(93.8%)이나 학력 및 소득이 낮을수록 ‘방송매체’의 존도는 높은 것으로 분석됨.



##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1.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실생활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살 빼는 약’(15.56%)이 1순위로 응답됨. 그 다음으로 ‘피로 회복제’(13.4%), ‘머리가 맑아지는 약/근육을 키워주는 약’(12.2%), ‘술 깨는 약’(10.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은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됨.
  - 술 깨는 약: ▲1.1%p('06년 9.6% → '07년 10.7%)
  - 머리 맑아지는 약/근육 키우는 약: ▲0.9%p('06년 11.3% → '07년 12.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률(%)	2001년	2006년	2007년	Gap
가. ‘피로 회복제’	8.9	12.8	13.4	▲0.6
나. ‘살 빼는 약’	2.0	15.1	15.6	▲0.5
다.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9	9.6	10.7	▲1.1
라.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	1.1	11.3	12.2	▲0.9

- 2007년 ‘피로 회복제’의 실생활 사용경험은 남성(13.4%), 20대(17.2%), 대구/경북(23.9%), 대재이상(17.0%), 화이트칼라(28.2%)에서 높게 나타남.
- ‘살 빼는 약’은 여성(21.7%), 20대(19.1%), 서울(18.8%), 대재이상(16.6%), 주부(18.5%), 고소득층일수록 사용경험이 높게 나타남.
- ‘술 깨는 약’의 사용경험률은 남성(15.4%), 20대(14.9%), 대구/경북(18.3%), 대재이상(14.2%), 화이트칼라(23.7%)에서 높게 나타남.
-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은 남성(21.1%), 20대(20.0%), 인천/경기(14.2%), 대재이상(17.4%), 화이트칼라(32.2%), 학생(28.0%)에서 사용경험이 높았음.

- 연령대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률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해 보면, 모든 약물에 대해 20대에서의 경험률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연령	피로 회복제 사용경험률(%)				살 빼는 약 사용경험률(%)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대	12.6	9.0	17.2	▲8.2	2.7	10.7	19.1	▲8.4
30대	8.0	15.1	14.0	1.1	3.1	18.6	13.6	▽5.5
40대	8.0	15.6	15.4	0.2	1.5	16.6	18.0	1.4
50대이상	6.9	11.8	9.0	▽2.8	0.7	14.6	13.1	1.5

연령	술 깨는 약 사용경험률(%)				머리 맑게 하는 약 사용경험률(%)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01년	2006년	2007년	Gap
20대	1.1	9.0	14.9	▲5.9	1.1	19.7	20.0	0.3
30대	3.8	15.5	12.3	▽3.2	1.9	12.0	15.7	▲3.7
40대	1.0	7.6	10.5	2.9	1.0	8.5	10.1	1.6
50대이상	1.4	6.3	6.9	0.6	0.4	5.6	5.9	0.3

※ Gap(%): (2007년 사용경험률) - (2006년 사용경험률)

##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약물예방교육을 학교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34.2%)는 의견이 1순위로 나타남.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34.2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32.3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 출입국 통제	24.4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에 맡김	8.6

(단위: %)
- 특히 여성이나 50대이상, 인천/경기 지역, 주부 및 블루칼라 종사자의 경우 ‘약물예방교육의 학교 정규교과과정 채택’ 방안에 대한 공감률이 높게 나타남.

###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응답 내용	%
① 이웃과 함께 관심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59.8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는 않겠다	19.9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	17.6
④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	1.9
무응답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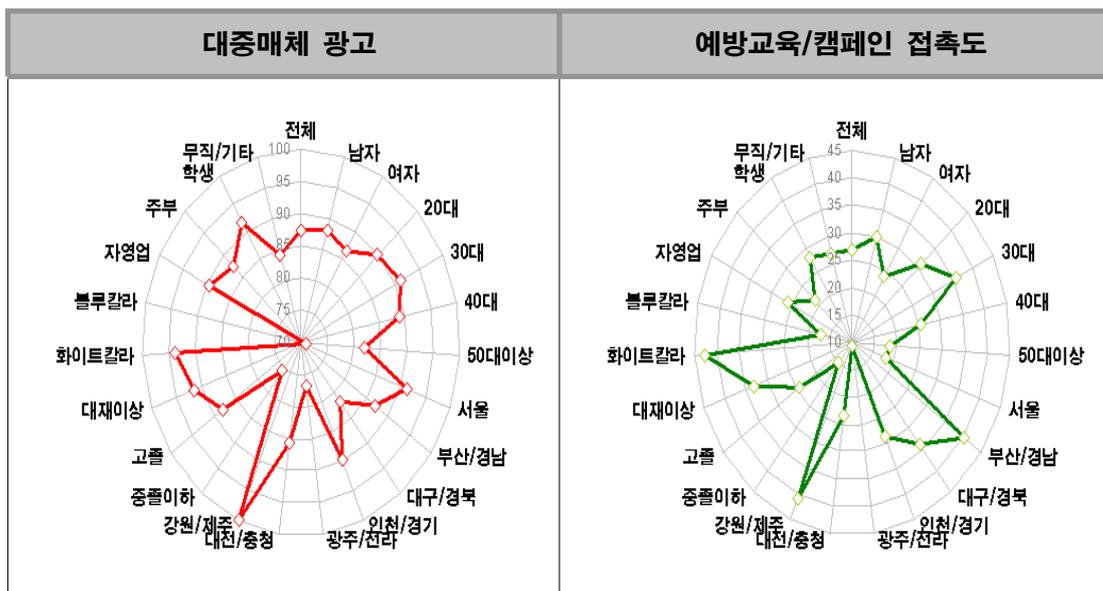
-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이상(59.8%)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제시함.
- 반면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소극적 태도(② ‘어울리지는 않겠다’ +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를 나타낸 비율은 37.5%이며, 적극적 반대(④ ‘이주 요구’)는 1.9%로 나타남.
- 특히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는 여성, 고연령층, 저학력층,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도(%)
가.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87.4
나.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26.7
다.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3.7
라.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3.5
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1.3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91.4%)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반면,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캠페인’ 접촉도는 26.7%,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접촉도 3.7%,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경험’ 3.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경험’은 1.3%로 나타남.



##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일반국민의 65.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을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함.
- 그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16.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4.0%), ‘마약류 연구사업’(3.7%) 순으로 응답함.



- 비교적 연령이 높을수록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요구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령이 낮을수록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이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단위:%)

구 분		예방을 위한 홍보/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연구사업
성	남성	63.3	18.1	14.4	4.1
	여성	67.9	14.6	13.6	3.4
연령	20대	54.0	23.7	18.6	3.3
	30대	65.3	17.8	14.0	3.0
	40대	71.1	12.7	12.7	3.1
	50대이상	69.8	12.8	11.8	5.0

##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응답 내용	%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36.3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31.6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21.5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9.9
가정에서 교육	0.3
무응답	0.4

-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마약류 사용/유통/제조업자의 처벌 강화’(21.5%)보다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3%)을 1순위로 제시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특히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을 1순위로 지정한 응답자는 50대이상(44.5%) 및 주부(40.2%)에서 높게 나타남.
- 마약류/약물남용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집단(N=784)과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집단(N=206) 모두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각각 36.9, 34.5%)을 1순위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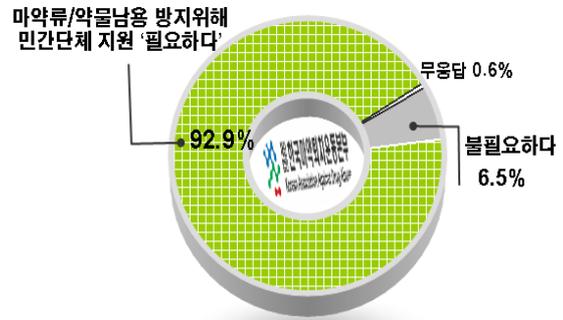
(단위:%)

집단 구분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류 제조/유통/사용자의 처벌 강화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마약류/약물남용 심각성 인식 집단 (N=784)	36.9↑	31.1	21.3	9.9
마약류/약물남용 심각성 비인식 집단 (N=206)	34.5↑	33.0	22.8	9.2

##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일반국민 대다수(92.9%)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매우 필요하다’ : 28.4%
- ‘대체로 필요하다’ : 64.5%



-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의 응답내용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을 분석해 보면, ‘확산 방지 방안’에 관계없이 대다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냄.

- 특히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등 교육과 홍보, 사회적 지원을 통해 마약류 확산 방지를 강조하는 응답자일수록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

(단위:%)

마약류 확산 방지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b>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b>		
초·중·고 대상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92.3	6.9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u>94.6</u>	4.7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u>94.9</u>	5.1
마약류 제조/유통/사용자의 처벌 강화	90.2	9.3

## 6 총 평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일반국민 10명 중 6명(60.9%)이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자각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35.7%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지난 2006년도 결과(57.9%)와 비교해 볼 때,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다소 증가(▲3.0%p)한 것으로 평가됨.
- 우리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7명 이상(78.4%)은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견해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77.5%)와 비교해보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도는 미비한 증가(▲0.9%p)를 하였으나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일반국민 대다수(91.4%)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는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낮게 인식하는 집단’(N=96)은 남자, 20대, 대재이상, 수도권 거주자로 분류되고 있어, 이들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안이 요망됨.

### ▣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 마약류 및 남용약물과 관련하여 ‘살 빼는 약’(15.6%)의 사용경험율이 1순위로 조사됨. 그 다음으로 ‘피로 회복제’(13.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워주는 약’(12.2%), ‘술 깨는 약’(10.7%) 순으로 나타남.
- 지난 2006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모든 약물에 대해서 미비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임.
- 그러나, 연령대별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 증가를 살펴보면,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을 제외한 모든 약물에 대해 20대 연령층의 사용 경험률 증가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의 학교 정규교과 과정 채택’(34.2%)과 ‘조기유학생/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32.3%) 방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음.

- 치료재활에 성공한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해 일반국민의 과반수 이상(59.8%)은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 태도를 제시함. 반면, 소극적 태도(② ‘어울리지 않겠다’ + ③ ‘관심을 갖지 않겠다’)는 37.5%이며, 적극적 반대(④ ‘이주 요구’)는 1.9%로 나타남.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 자각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은 마약류 및 남용약물에 대한 사용경험율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홍보와 교육 그리고 법적 제재의 균형감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요망됨.

##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의 접촉도가 8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방송매체를 통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폐해나 위험성을 알게 되었다’(91.4%)는 조사결과와도 연결될 수 있음.
- 반면,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 캠페인’ 접촉도는 26.7%, ‘중독자 재활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3.7%,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경험’ 3.5%,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경험’은 1.3%로 각각 나타남.
- 일반국민의 65.6%는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방향으로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고,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16.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14.0%), ‘마약류 연구사업’(3.7%) 순으로 응답함.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홍보활동 접촉경로가 주로 TV 등 대중매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홍보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향후 다채널 다매체 환경에 맞춰 홍보활동 집행매체의 다변화가 요망됨.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3%)을 제시하여 교육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냄.
- 일반국민 대다수(92.9%)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민간단체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됨.



일반국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처벌 강화’보다 ‘마약류 예방 교육 강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마약류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하기 위한 여론확산 전략이 요망됨.

## Contents

### Ⅲ 조사 결과 분석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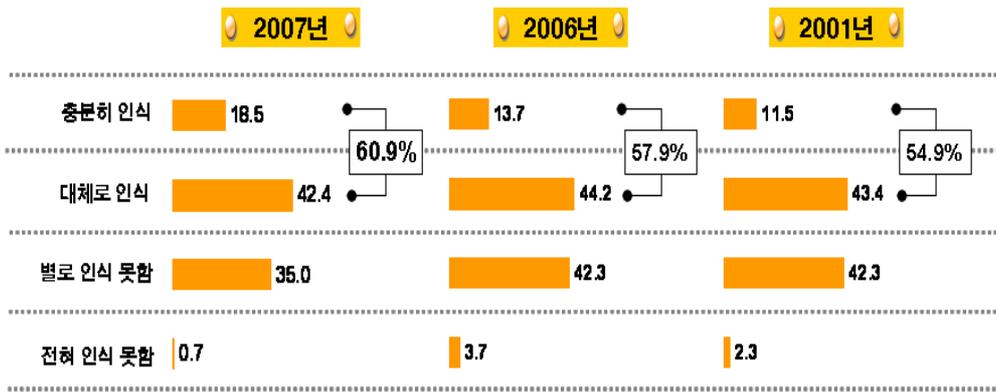
5 치료보호제도에 대한 의견

#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 1.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일반국민의 10명 중 6명이상(60.9%)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인식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35.7%로 나타나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지난, '06년 대비 '07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인식은 3.0%p 상승된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 >



※ 무응답 3.4%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위험성과 심각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63.4%로 나타나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 및 체감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 위험성과 심각성에 대한 인식 >

위험성 인식정도(%) 사회적 심각성(%)	인식	비인식	무응답
	심각한 편	63.4	32.9
심각하지 않은 편	51.0	46.6	2.4
무응답	70.0	30.0	-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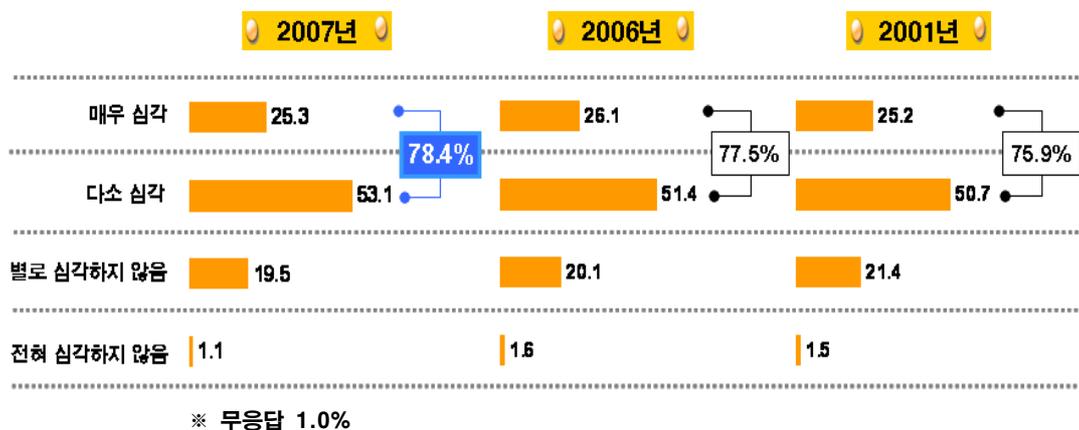
- ‘사회구성원이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견은 남자(63.1%), 연령이 높을수록, 대구/경북(73.4%), 대전/충청(71.4%), 학력이 낮을수록, 블루칼라(63.2%) 및 주부(61.8%)에서 높게 공감하고 있음.
- 반면, 여성(37.7%), 20대(43.7%), 광주/전라(48.5%),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42.1%) 및 화이트칼라(40.1%), 월 가구평균 401만원 이상(38.7%) 고소득 층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충분히 인식	대체로 인식	별로 인식하지 못함	전혀 인식하지 못함	무응답	인식	비인식
<b>전체</b>		<b>1,000명</b>	<b>18.5%</b>	<b>42.4%</b>	<b>35.0%</b>	<b>0.7%</b>	<b>3.4%</b>	<b>60.9%</b>	<b>35.7%</b>
성	남자	493	17.8	45.2	33.3	0.4	3.2	63.1	33.7
	여자	507	19.1	39.6	36.7	1.0	3.6	58.8	37.7
연령	20대	215	11.2	44.2	43.3	0.5	0.9	55.3	43.7
	30대	236	19.1	39.4	38.1	0.4	3.0	58.5	38.6
	40대	228	16.7	43.0	36.4	1.8	2.2	59.6	38.2
	50대이상	321	24.3	43.0	26.2	0.3	6.2	67.3	26.5
지역	서울	218	16.5	46.8	32.6	1.8	2.3	63.3	34.4
	부산/경남	165	23.0	44.2	27.3	1.2	4.2	67.3	28.5
	대구/경북	109	22.9	50.5	23.9	0.0	2.8	73.4	23.9
	인천/경기	275	13.5	37.1	44.4	0.4	4.7	50.5	44.7
	광주/전라	103	3.9	43.7	48.5	0.0	3.9	47.6	48.5
	대전/충청	98	33.7	37.8	26.5	0.0	2.0	71.4	26.5
학력	강원/제주	32	37.5	31.3	31.3	0.0	0.0	68.8	31.3
	중졸이하	180	20.6	46.7	25.6	0.0	7.2	67.2	25.6
	고졸	355	18.0	42.3	35.8	0.6	3.4	60.3	36.3
직업	대재이상	465	18.1	40.9	38.1	1.1	1.9	58.9	39.1
	화이트칼라	177	18.1	41.2	39.0	1.1	0.6	59.3	40.1
	블루칼라	87	19.5	43.7	29.9	0.0	6.9	63.2	29.9
	자영업	172	15.1	45.3	36.0	1.2	2.3	60.5	37.2
	주부	356	22.8	39.0	34.0	0.6	3.7	61.8	34.6
	학생	107	11.2	44.9	41.1	0.9	1.9	56.1	42.1
소득	무직/기타	101	16.8	47.5	27.7	0.0	7.9	64.4	27.7
	100만원이하	114	21.9	40.4	27.2	0.0	10.5	62.3	27.2
	101-200만원	141	12.8	46.8	36.9	0.0	3.5	59.6	36.9
	201-300만원	248	20.2	42.3	34.3	1.6	1.6	62.5	35.9
	301-400만원	187	18.7	42.8	35.3	0.0	3.2	61.5	35.3
	401만원이상	173	22.0	38.2	37.6	1.2	1.2	60.1	38.7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37	13.9	44.5	37.2	0.7	3.6	58.4	38.0
	있음	61	11.5	44.3	44.3	0.0	0.0	55.7	44.3
		939	19.0	42.3	34.4	0.7	3.6	61.2	35.1

## 2.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78.4%는 개인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반면, ‘심각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20.6%로 나타남.
- 지난 '06년 대비 '07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는 의견은 비슷한 수준(▲0.9%p)인 것으로 조사됨.
- 대검찰청 마약부 '07년 10월 자료를 보면, 마약류사범 단속누계는 '06년 10월에 비해 '07년 10월기준 39.2%p 큰 폭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인 것으로 분석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 정도 〉



〈 연도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단위: 명) 〉

구분	'07.10	'06.10	'05	'04	'03	'02	'01	'00	'99	'98	'97	
사범수	8,930	6,414	7,154	7,747	7,546	10,673	10,102	10,304	10,589	8,350	6,947	
마약	929	816	768	1,203	1,211	790	661	954	923	892	1,201	
향정	7,047	4,900	5,354	5,313	4,727	7,918	7,959	7,066	7,479	5,852	4,445	
대마	964	698	1,032	1,231	1,608	1,965	1,482	2,284	2,187	1,606	1,301	
변화	39.2%▲											

〈자료〉 대검찰청 마약부: 마약관련 통계자료 2007년도 10월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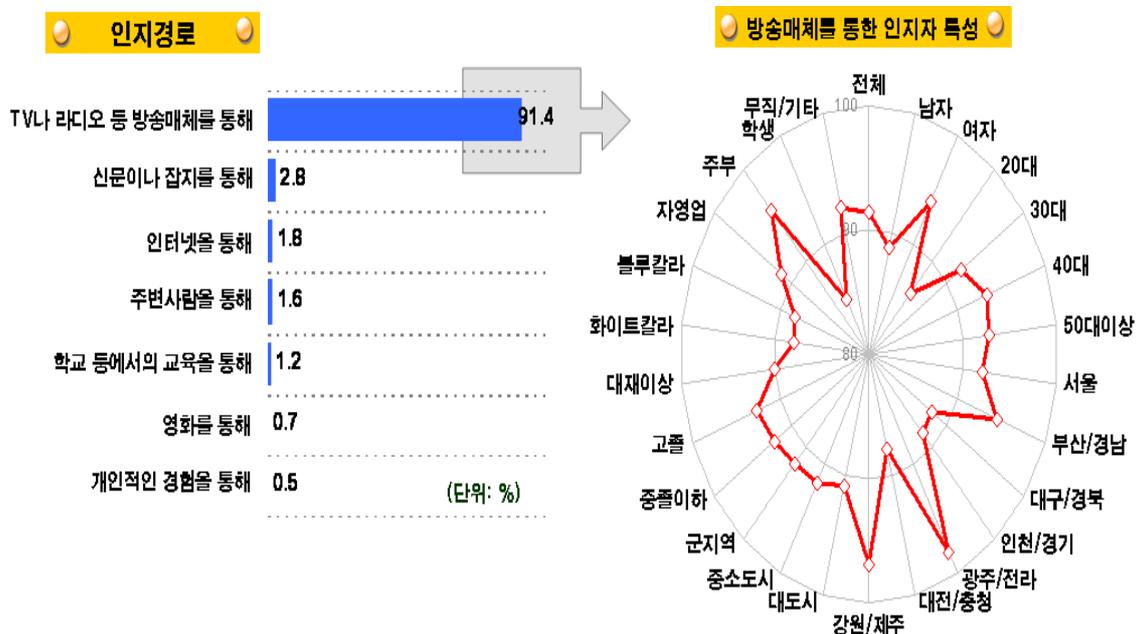
-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성(81.3%), 50대이상(83.5%), 서울(81.7%) 및 대구/경북(82.6%), 학력이 낮을 수록, 블루칼라(82.8%) 및 주부(82.0%)에서 높았음.
- 반면, 남자(24.1%), 20대(27.9%), 인천/경기(22.5%) 및 광주/전라(22.3%), 학력이 높을수록, 학생(29.0%) 및 화이트칼라(26.0%), 월 평균 401만원 이상(23.1%) 고소득층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심각하지 않다’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매우 심각	다소 심각	별로심각하지않음	전혀심각하지않음	무응답	심 각	비심각
<b>전 체</b>		<b>1,000명</b>	<b>25.3</b>	<b>53.1</b>	<b>19.5</b>	<b>1.1</b>	<b>1.0</b>	<b>78.4</b>	<b>20.6</b>
성	남자	493	25.4	50.1	22.5	1.6	0.4	75.5	24.1
	여자	507	25.2	56.0	16.6	0.6	1.6	81.3	17.2
연령	20대	215	22.8	48.8	26.5	1.4	0.5	71.6	27.9
	30대	236	22.5	55.9	20.3	0.4	0.8	78.4	20.8
	40대	228	25.9	51.8	20.6	1.3	0.4	77.6	21.9
	50대이상	321	28.7	54.8	13.4	1.2	1.9	83.5	14.6
지역	서울	218	27.1	54.6	16.5	0.9	0.9	81.7	17.4
	부산/경남	165	20.0	56.4	21.2	0.6	1.8	76.4	21.8
	대구/경북	109	17.4	65.1	15.6	0.9	0.9	82.6	16.5
	인천/경기	275	31.3	45.5	21.8	0.7	0.7	76.7	22.5
	광주/전라	103	15.5	62.1	21.4	1.0	0.0	77.7	22.3
	대전/충청	98	26.5	50.0	17.3	4.1	2.0	76.5	21.4
	강원/제주	32	43.8	31.3	25.0	0.0	0.0	75.0	25.0
학력	중졸이하	180	26.7	57.8	11.7	1.1	2.8	84.4	12.8
	고졸	355	30.4	49.9	18.3	0.6	0.8	80.3	18.9
	대재이상	465	20.9	53.8	23.4	1.5	0.4	74.6	24.9
직업	화이트칼라	177	23.2	50.8	24.9	1.1	0.0	74.0	26.0
	블루칼라	87	29.9	52.9	12.6	1.1	3.4	82.8	13.8
	자영업	172	25.6	51.2	21.5	1.7	0.0	76.7	23.3
	주부	356	26.7	55.3	15.4	0.8	1.7	82.0	16.3
	학생	107	23.4	47.7	28.0	0.9	0.0	71.0	29.0
	무직/기타	101	21.8	58.4	17.8	1.0	1.0	80.2	18.8
소득	100만원이하	114	29.8	52.6	11.4	1.8	4.4	82.5	13.2
	101-200만원	141	22.0	57.4	17.7	0.7	2.1	79.4	18.4
	201-300만원	248	30.2	49.6	19.0	0.8	0.4	79.8	19.8
	301-400만원	187	20.3	59.4	19.3	1.1	0.0	79.7	20.3
	401만원이상	173	27.7	48.6	22.0	1.2	0.6	76.3	23.1
	무응답	137	19.7	52.6	26.3	1.5	0.0	72.3	27.7
장기해외 체류경험	있음	61	26.2	45.9	26.2	1.6	0.0	72.1	27.9
	없음	939	25.2	53.6	19.1	1.1	1.1	78.8	20.1

### 3.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일반국민의 대다수(91.4%)는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은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2.8%), ‘인터넷을 통해서’(1.8%), ‘주변사람을 통해서’(1.6%) 등의 순으로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힘.
- 특히, 일반국민의 0.5%(N=5)는 직접적인 체감을 통해 위험성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장기체류 경험자(1.6%)가 비경험자(0.4%)에 비해 높았음.
- 방송매체를 통해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피해를 인지한 응답자는 여자(93.9%), 40대(93.4%), 광주/전라(98.1%), 주부(95.5%) 및 자영업(9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피해 인지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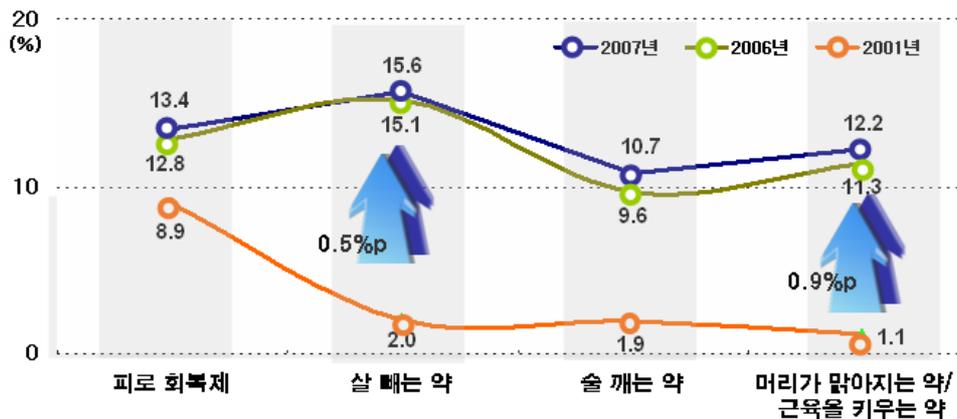


## 2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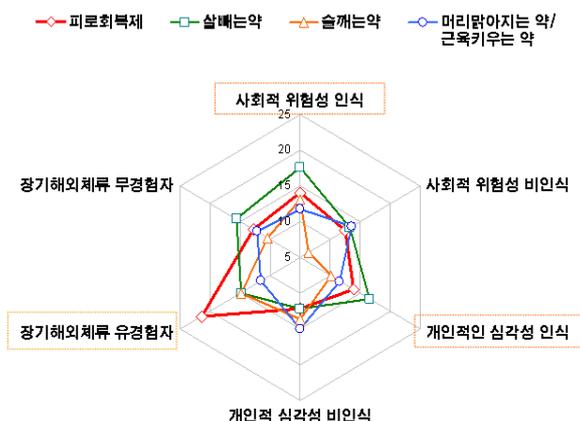
### 1.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실생활에서 마약류 및 남용약물의 사용경험을 살펴보면, ‘살 빼는 약’(15.6%)에 대한 사용 경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다음은 ‘피로 회복제’(13.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12.2%), ‘술 깨는 약’(10.7%)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 경험률은 '06년도 조사결과 대비 유사한 수준이지만, 조사시 제시한 모든 약물에 대해서 일반국민의 10%이상이 사용경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마약류 및 불법의약품에 대한 인식 및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마약류에 대한 사용 경험 >



- 한편, 마약류 및 약물을 사용한 유경험자들은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 및 위험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지하고 있으며, 특히, 장기해외체류 경험자가 비경험자에 비해 불법의약품 사용 경험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응답자 특성별 분석

□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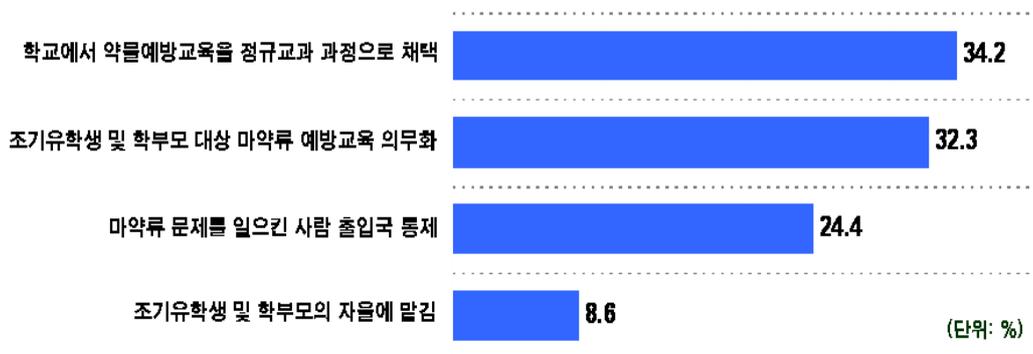
- ⇒ ‘피로회복제’ 사용경험은 남성(16.4%), 20대(17.2%), 대구/경북(23.9%), 대재 이상(17.0%), 화이트칼라(28.2%), 월평균 400만원 이상(22.0%)에서 높았음.
- ⇒ ‘살빼는 약’ 사용경험은 여성(21.7%), 20대(19.1%), 서울(18.8%), 대재이상(16.6%), 주부(18.5%), 월평균 400만원 이상(21.4%)에서 높았음.
- ⇒ ‘술깨는 약’ 사용경험은 남성(15.4%), 연령이 낮을수록, 대구/경북(18.3%), 대재이상(14.2%), 화이트칼라(23.7%)에서 높았음.
- ⇒ ‘머리맑아지는 약 및 근육키우는 약’ 사용경험은 남성(21.1%), 20대(20.0%), 인천/경기(14.2%), 대재이상(17.4%), 화이트칼라(32.2%) 및 학생(28.0%)에서 높았음.

	사례수	피로 회복제		살빼는 약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머리가 맑아지는 약 / 근육을 키우는 약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b>전 체</b>	<b>1,000명</b>	<b>13.4%</b>	<b>86.6%</b>	<b>15.6%</b>	<b>84.4%</b>	<b>10.7%</b>	<b>89.3%</b>	<b>12.2%</b>	<b>87.8%</b>	
<b>성</b>	남자	493	16.4	83.6	9.3	90.7	15.4	84.6	21.1	78.9
	여자	507	10.5	89.5	21.7	78.3	6.1	93.9	3.6	96.4
<b>연령</b>	20대	215	17.2	82.8	19.1	80.9	14.9	85.1	20.0	80.0
	30대	236	14.0	86.0	13.6	86.4	12.3	87.7	15.7	84.3
	40대	228	15.4	84.6	18.0	82.0	10.5	89.5	10.1	89.9
	50대이상	321	9.0	91.0	13.1	86.9	6.9	93.1	5.9	94.1
<b>지역</b>	서울	218	11.5	88.5	18.8	81.2	8.3	91.7	11.9	88.1
	부산/경남	165	10.3	89.7	16.4	83.6	10.9	89.1	13.9	86.1
	대구/경북	109	23.9	76.1	17.4	82.6	18.3	81.7	8.3	91.7
	인천/경기	275	18.5	81.5	16.4	83.6	10.9	89.1	14.2	85.8
	광주/전라	103	2.9	97.1	5.8	94.2	3.9	96.1	7.8	92.2
	대전/충청	98	8.2	91.8	9.2	90.8	10.2	89.8	12.2	87.8
<b>학력</b>	강원/제주	32	12.5	87.5	28.1	71.9	21.9	78.1	15.6	84.4
	중졸이하	180	5.0	95.0	13.3	86.7	3.3	96.7	2.8	97.2
<b>직업</b>	고졸	355	13.0	87.0	15.5	84.5	9.9	90.1	10.1	89.9
	대재이상	465	17.0	83.0	16.6	83.4	14.2	85.8	17.4	82.6
	화이트칼라	177	28.2	71.8	15.8	84.2	23.7	76.3	32.2	67.8
<b>소득</b>	블루칼라	87	8.0	92.0	12.6	87.4	14.9	85.1	11.5	88.5
	자영업	172	13.4	86.6	15.1	84.9	8.7	91.3	6.4	93.6
	주부	356	8.7	91.3	18.5	81.5	3.4	96.6	2.5	97.5
	학생	107	12.1	87.9	15.0	85.0	15.0	85.0	28.0	72.0
	무직/기타	101	9.9	90.1	8.9	91.1	8.9	91.1	5.0	95.0
<b>소득</b>	100만원이하	114	8.8	91.2	8.8	91.2	4.4	95.6	0.9	99.1
	101-200만원	141	5.7	94.3	12.8	87.2	7.1	92.9	12.1	87.9
	201-300만원	248	10.5	89.5	14.9	85.1	9.7	90.3	10.9	89.1
	301-400만원	187	15.5	84.5	18.7	81.3	16.0	84.0	13.9	86.1
	401만원이상	173	22.0	78.0	21.4	78.6	13.3	86.7	15.0	85.0
	무응답	137	16.8	83.2	13.9	86.1	10.9	89.1	18.2	81.8

## 2.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최우선 방안으로 ‘학교에서 약물 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34.2%)을 1순위로 꼽음.
- 다음은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32.3%),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24.4%),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에 맡김’(8.6%)의 순으로 대처방안을 제시함.

〈 조기유학생들의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 공감도가 높은 집단은 조기유학생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으로 ‘학교에서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사회적 심각성 공감도가 낮은 집단은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를 주요 방안으로 꼽음. 단, ‘자율에 맡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의 공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다소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심각성 인식에 정도에 따른 조기유학생 마약류 문제 대처방안 〉

대처방안(%)	학교에서 정규교과 과정 채택	마약류 예방교육 의무화	문제자 출입국 통제	자율에 맡김
사회적 심각성				
심각한 편	36.2	31.9	24.1	7.4
심각하지 않은 편	25.2	34.5	26.7	12.6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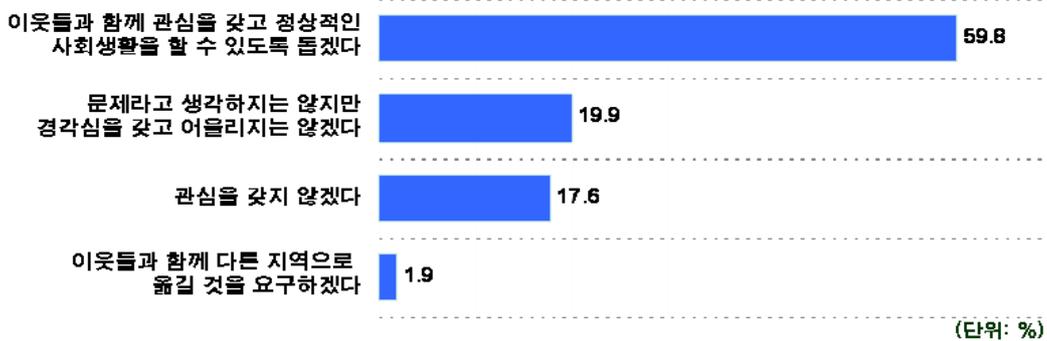
- 조기 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방안으로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여성(38.9%), 50대이상(39.3%), 인천/경기(39.3%), 주부(41.0%) 및 블루칼라(40.2%)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교육의 의무화’ 방안에 대해 20대(34.9%), 대구/경북(38.5%), 대재이상(35.7%), 학생(39.3%)이 상대적으로 높게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학교에서 정규 과정 채택	예방교육 의무화	문제자 출입국 통제	자율에 맡김	무응답
<b>전 체</b>		<b>1,000명</b>	<b>34.2%</b>	<b>32.3%</b>	<b>24.4%</b>	<b>8.6%</b>	<b>0.5%</b>
성	남자	493	29.4	30.6	29.6	9.7	0.6
	여자	507	38.9	33.9	19.3	7.5	0.4
연령	20대	215	24.2	34.9	28.8	11.2	0.9
	30대	236	36.9	30.9	24.6	7.6	0.0
	40대	228	33.8	32.0	24.6	9.2	0.4
	50대이상	321	39.3	31.8	21.2	7.2	0.6
지역	서울	218	28.0	31.7	29.8	10.6	0.0
	부산/경남	165	35.8	27.3	32.7	4.2	0.0
	대구/경북	109	34.9	38.5	19.3	7.3	0.0
	인천/경기	275	39.3	33.8	16.4	9.8	0.7
	광주/전라	103	32.0	32.0	31.1	3.9	1.0
	대전/충청	98	33.7	30.6	23.5	10.2	2.0
학력	강원/제주	32	31.3	34.4	12.5	21.9	0.0
	중졸이하	180	40.6	31.1	21.1	6.1	1.1
	고졸	355	40.6	28.5	20.8	10.1	0.0
직업	대재이상	465	26.9	35.7	28.4	8.4	0.6
	화이트칼라	177	26.6	33.3	31.1	8.5	0.6
	블루칼라	87	40.2	27.6	26.4	5.7	0.0
	자영업	172	32.6	30.8	27.9	8.7	0.0
	주부	356	41.0	32.3	18.8	7.6	0.3
	학생	107	23.4	39.3	27.1	9.3	0.9
소득	무직/기타	101	32.7	29.7	21.8	13.9	2.0
	100만원이하	114	39.5	33.3	16.7	8.8	1.8
	101-200만원	141	34.8	34.8	22.0	8.5	0.0
	201-300만원	248	37.1	30.2	24.2	8.1	0.4
	301-400만원	187	29.9	35.3	28.9	5.9	0.0
	401만원이상	173	36.4	27.2	25.4	9.8	1.2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37	27.0	35.0	26.3	11.7	0.0
	있음	61	34.4	32.8	23.0	8.2	1.6
		939	34.2	32.3	24.5	8.6	0.4

### 3.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일반국민들의 과반수 이상(59.8%)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재활치료 후 같은 지역 거주할 경우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제시함.
- 반면, 1.9%는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라는 반대의 견을 제시하여 마약류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37.5%는 중독 회복자와의 공동생활에 대한 소극적 태도(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 않겠다 19.9% + 관심을 갖지 않겠다 17.6%)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냉소적인 것으로 분석됨.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집단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돕겠다’라는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반면,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집단은 전반적으로 무관심과 같은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양상임.

〈사회적 인식에 따른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마약류 중독 회복자에 대한 인식	사회적 심각성 정도(%)		사회구성원의 위험성 인식정도(%)	
	심각한 편	심각하지 않은 편	인식하는 편	인식하지 않은 편
서로 돕겠다	62.2	51.9	63.4	54.6
문제 없지만 어울리지 않겠다	20.8	17.0	18.2	22.4
관심을 갖지 않겠다	14.4	27.7	15.6	20.2
타지역으로 이전요구	1.8	2.4	2.0	2.0

##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같은 지역에 거주 시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는 적극적 태도를 보인 응답자는 여성(63.1%), 50대 이상(67.9%), 광주/전라(66.0%) 및 서울(62.4%), 주부(62.9%) 및 학생(59.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20.9%), 30대(24.6%), 대구/경북(24.8%) 및 부산/경남(23.6%), 대재 이상(21.5%), 소득이 높을수록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울리지는 않겠다’는 방관적인 태도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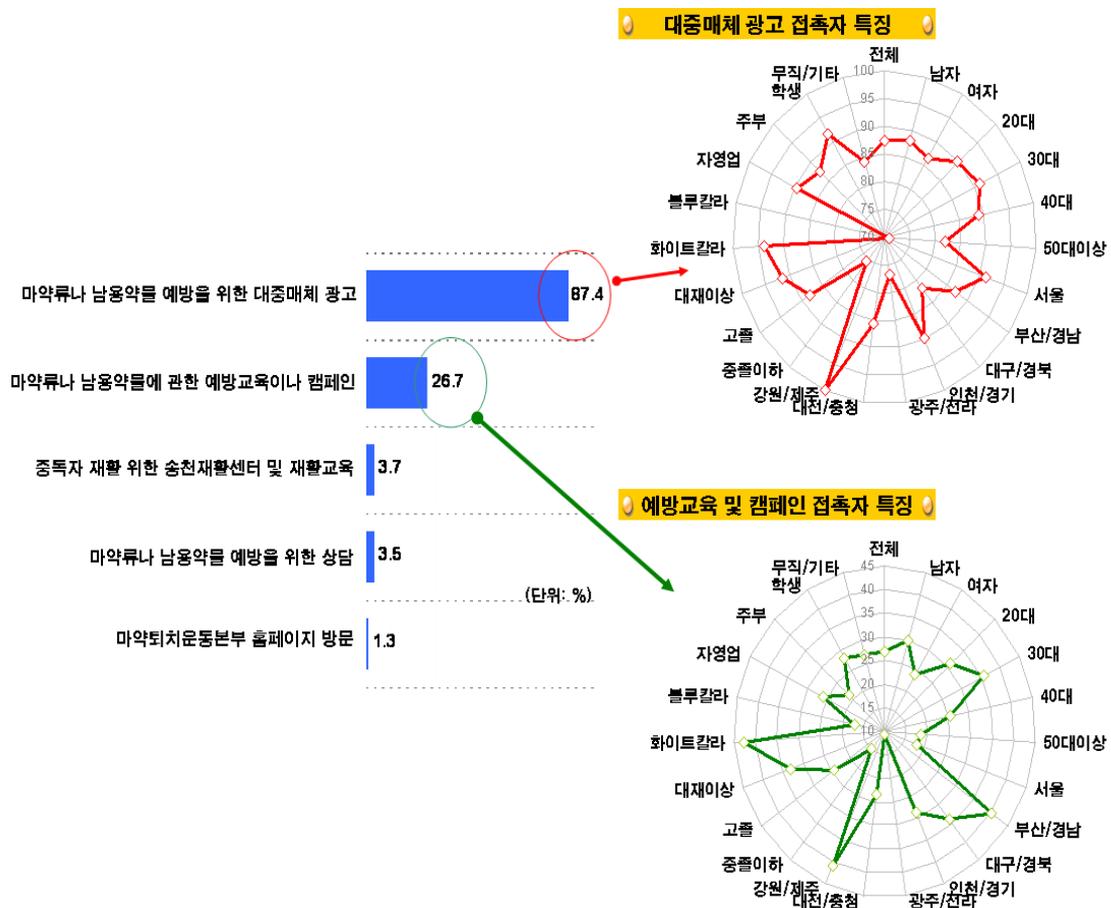
		사례수	서로 돕겠다	문제없지만 어울리지 않음	관심을 안가짐	타지역 이전요구	무응답
<b>전 체</b>		<b>1,000명</b>	<b>59.8%</b>	<b>19.9%</b>	<b>17.6%</b>	<b>1.9%</b>	<b>0.8%</b>
성	남자	493	56.4	20.9	19.7	2.2	0.8
	여자	507	63.1	18.9	15.6	1.6	0.8
연령	20대	215	54.0	18.1	24.7	1.9	1.4
	30대	236	52.5	24.6	19.5	2.1	1.3
	40대	228	61.4	22.8	14.0	1.3	0.4
	50대이상	321	67.9	15.6	14.0	2.2	0.3
지역	서울	218	62.4	19.7	17.4	0.5	0.0
	부산/경남	165	57.0	23.6	15.2	3.6	0.6
	대구/경북	109	57.8	24.8	14.7	1.8	0.9
	인천/경기	275	59.3	18.5	18.9	1.5	1.8
	광주/전라	103	66.0	16.5	13.6	2.9	1.0
	대전/충청	98	52.0	20.4	24.5	3.1	0.0
강원/제주	강원/제주	32	71.9	6.3	21.9	0.0	0.0
	중졸이하	180	63.3	16.1	16.7	3.3	0.6
	고졸	355	63.1	19.7	14.9	1.7	0.6
학력	대재이상	465	55.9	21.5	20.0	1.5	1.1
	화이트칼라	177	55.9	20.3	21.5	1.1	1.1
	블루칼라	87	52.9	23.0	19.5	4.6	0.0
직업	자영업	172	58.7	20.9	18.6	1.2	0.6
	주부	356	62.9	20.5	13.8	2.0	0.8
	학생	107	59.8	16.8	21.5	0.9	0.9
	무직/기타	101	63.4	15.8	16.8	3.0	1.0
	100만원이하	114	59.6	13.2	22.8	3.5	0.9
소득	101-200만원	141	68.8	14.2	13.5	3.5	0.0
	201-300만원	248	55.6	21.8	18.5	2.4	1.6
	301-400만원	187	59.4	23.5	16.0	1.1	0.0
	401만원이상	173	56.1	23.7	18.5	1.2	0.6
	무응답	137	63.5	18.2	16.8	0.0	1.5
장기해외 체류경험	있음	61	55.7	27.9	14.8	1.6	0.0
	없음	939	60.1	19.4	17.8	1.9	0.9

### 3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1.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일반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87.4%)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홍보활동 중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를 가장 많이 접촉한 것으로 나타남.
-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접촉도는 26.7%, ‘중독자 재활을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에 대한 접촉도는 3.7%,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접촉도는 3.5%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은 1.3%로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가장 노출이 큰 ‘대중매체 광고’와 ‘예방교육 및 캠페인’ 접촉자는 30대,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칼라 및 학생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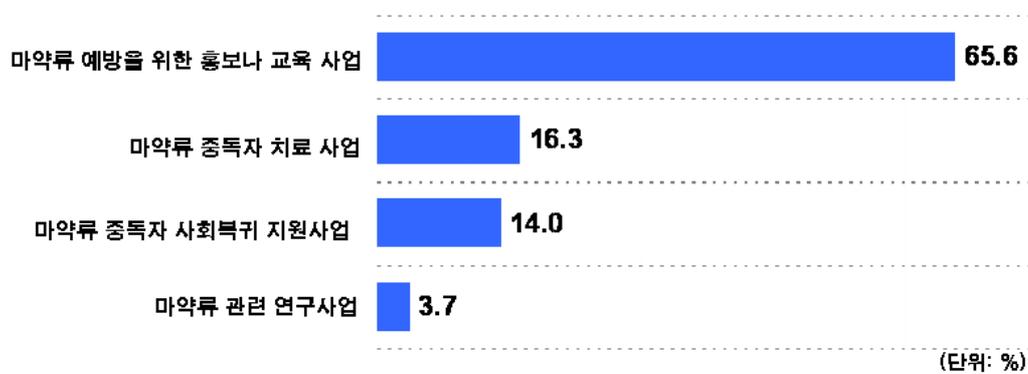
<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 접촉도 >



## 2.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 방향

- 일반국민 과반수 이상(65.6%)은 향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음으로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16.3%),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지 지원 사업’(14.0%),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3.7%)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함.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의 체감도와 관계없이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과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향후 주요 강화 사업으로 꼽은 반면,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및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심각성의 체감도가 낮은 집단에서 다소 높았음.

〈 사회적 심각성 인식에 정도에 따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사업 방향 〉

사업방향(%)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사업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사회적 심각성				
심각한 편	66.6	15.8	13.6	3.7
심각하지 않은 편	62.1	17.5	16.0	3.9

\* 무응답 제외

응답자 특성별 분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향후 ‘마약류 예방을 위해 홍보나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자(67.9%), 연령이 높을수록, 광주/전라(71.8%), 학력이 낮을수록, 주부(69.1%) 월 평균 100만원 이하(74.6%)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사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18.1%), 20대(23.7%), 대전/충청(18.4%), 블루칼라(24.1%) 및 학생(21.5%), 월 평균 101-200만원(23.4%) 소득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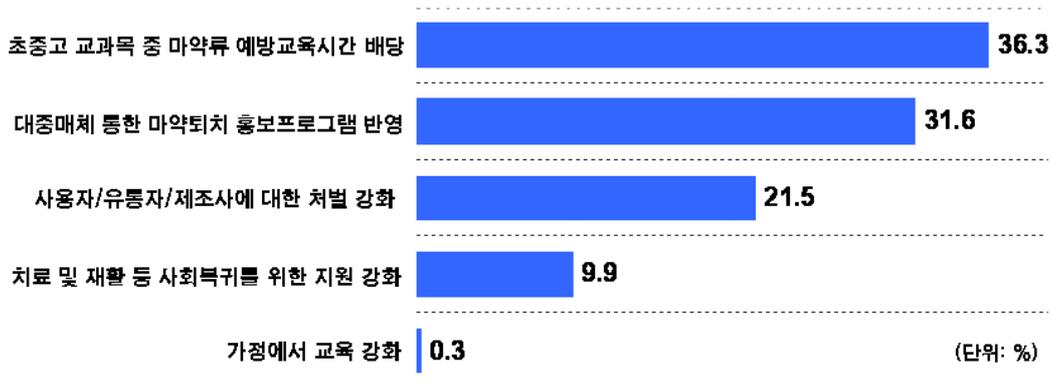
		사례수	홍보나 교육사업	중독자 치료사업	사회복지 지원사업	마약류 연구사업	무응답
<b>전 체</b>		<b>1,000명</b>	<b>65.6%</b>	<b>16.3%</b>	<b>14.0%</b>	<b>3.7%</b>	<b>0.4%</b>
<b>성</b>	남자	493	63.3	18.1	14.4	4.1	0.2
	여자	507	67.9	14.6	13.6	3.4	0.6
<b>연령</b>	20대	215	54.0	23.7	18.6	3.3	0.5
	30대	236	65.3	17.8	14.0	3.0	0.0
	40대	228	71.1	12.7	12.7	3.1	0.4
	50대이상	321	69.8	12.8	11.8	5.0	0.6
<b>지역</b>	서울	218	61.0	15.1	20.6	3.2	0.0
	부산/경남	165	69.7	15.8	11.5	2.4	0.6
	대구/경북	109	69.7	14.7	11.0	4.6	0.0
	인천/경기	275	64.0	16.0	14.5	4.4	1.1
	광주/전라	103	71.8	17.5	7.8	2.9	0.0
	대전/충청	98	65.3	18.4	12.2	4.1	0.0
<b>학력</b>	강원/제주	32	56.3	25.0	12.5	6.3	0.0
	중졸이하	180	68.3	14.4	10.6	5.6	1.1
	고졸	355	66.5	17.5	14.1	2.0	0.0
<b>직업</b>	대재이상	465	63.9	16.1	15.3	4.3	0.4
	화이트칼라	177	65.5	15.8	13.0	5.1	0.6
	블루칼라	87	64.4	24.1	8.0	2.3	1.1
	자영업	172	65.1	16.3	15.7	2.9	0.0
	주부	356	69.1	14.3	13.5	2.8	0.3
	학생	107	51.4	21.5	20.6	5.6	0.9
<b>소득</b>	무직/기타	101	70.3	11.9	12.9	5.0	0.0
	100만원이하	114	74.6	9.6	8.8	5.3	1.8
	101-200만원	141	58.2	23.4	15.6	2.8	0.0
	201-300만원	248	70.6	14.1	12.1	2.8	0.4
	301-400만원	187	63.6	16.0	16.6	3.7	0.0
	401만원이상	173	65.3	16.8	13.3	4.0	0.6
<b>장기해외 체류경험</b>	무응답	137	59.9	18.2	17.5	4.4	0.0
	있음	61	72.1	14.8	13.1	0.0	0.0
		939	65.2	16.4	14.1	3.9	0.4

## 4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1.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방안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36.3%)을 1순위로 꼽음.
- 다음으로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31.6%),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21.5%),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9.9%)의 순으로 확산 방지 방안을 제시함.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사회적 심각성과 위험성의 인식정도에 관계없이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과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의 주요 방안으로 제시함.
- 반면, 사회적 위험성의 인식도가 낮은 집단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와 ‘마약류 사용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라는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남.

< 사회적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에 정도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방안 >

방지방안(%)	예방 교육시간 배당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방영	처벌강화	사회복귀 지원강화
구분				
심각한 편	36.9	31.1	21.3	9.9
심각하지 않은 편	34.5	33.0	22.8	9.2
인식	37.6	32.3	20.2	9.4
비인식	33.6	30.5	24.4	10.4

\* 무응답 제외

## 응답자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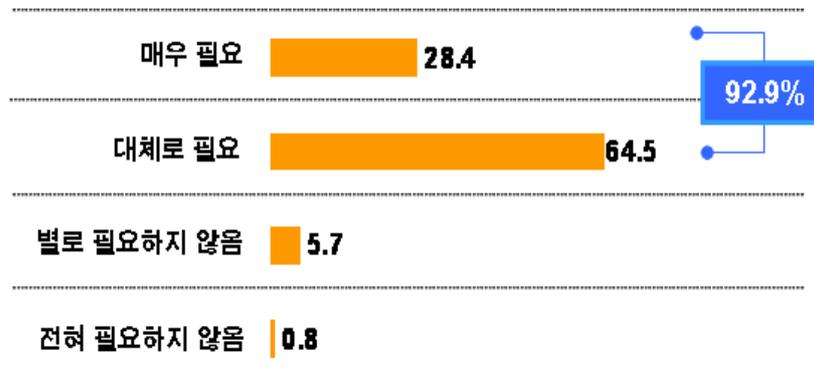
-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 확산 방지 방안으로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연령이 높을수록, 대구/경북(50.5%), 고졸(42.0%), 블루칼라(42.5%) 및 주부(40.2%), 월 평균 100만원 이하(43.9%) 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32.9%), 30대(33.1%), 서울(43.6%), 학생(40.2%) 및 화이트칼라(35.0%), 월 평균 101~200만원(34.0%) 소득 층에서는 ‘대중매체 활용을 통한 마약퇴치 프로그램 방영’이라는 의견에 높은 공감도를 보임.

		사례수	예방 교육 시간 배당	대중매체 홍보 프로그램 방영	처벌강화	사회복귀 지원강화	가정에서 교육	무응답
<b>전 체</b>		<b>1,000명</b>	<b>36.3%</b>	<b>31.6%</b>	<b>21.5%</b>	<b>9.9%</b>	<b>0.3%</b>	<b>0.4%</b>
성	남자	493	36.1	32.9	21.1	9.5	0.4	0.0
	여자	507	36.5	30.4	21.9	10.3	0.2	0.8
연령	20대	215	27.4	32.6	24.2	15.3	0.0	0.5
	30대	236	32.6	33.1	20.8	12.7	0.4	0.4
	40대	228	36.8	31.1	22.4	9.2	0.4	0.0
	50대이상	321	44.5	30.2	19.6	4.7	0.3	0.6
지역	서울	218	25.2	43.6	18.3	12.8	0.0	0.0
	부산/경남	165	31.5	36.4	21.2	10.9	0.0	0.0
	대구/경북	109	50.5	33.0	10.1	6.4	0.0	0.0
	인천/경기	275	41.1	28.7	19.3	9.5	1.1	0.4
	광주/전라	103	35.9	19.4	32.0	10.7	0.0	1.9
	대전/충청	98	36.7	20.4	33.7	8.2	0.0	1.0
	강원/제주	32	46.9	18.8	31.3	3.1	0.0	0.0
학력	중졸이하	180	40.6	28.3	23.9	5.6	0.6	1.1
	고졸	355	42.0	27.9	21.1	8.2	0.3	0.6
	대재이상	465	30.3	35.7	20.9	12.9	0.2	0.0
직업	화이트칼라	177	33.9	35.0	16.9	14.1	0.0	0.0
	블루칼라	87	42.5	28.7	20.7	8.0	0.0	0.0
	자영업	172	35.5	32.0	23.3	8.7	0.6	0.0
	주부	356	40.2	28.7	21.6	8.1	0.3	1.1
	학생	107	17.8	40.2	27.1	15.0	0.0	0.0
	무직/기타	101	42.6	28.7	20.8	6.9	1.0	0.0
소득	100만원이하	114	43.9	28.1	21.1	5.3	0.9	0.9
	101~200만원	141	34.8	34.0	19.1	11.3	0.0	0.7
	201~300만원	248	40.3	27.8	22.6	8.1	0.8	0.4
	301~400만원	187	31.0	32.1	23.5	13.4	0.0	0.0
	401만원이상	173	40.5	32.9	19.1	7.5	0.0	0.0
	무응답	137	26.3	36.5	22.6	13.9	0.0	0.7
장기해외 체류경험	있음	61	36.1	36.1	19.7	8.2	0.0	0.0
	없음	939	36.3	31.3	21.6	10.0	0.3	0.4

## 2.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일반국민의 대다수(92.9%)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높은 공감을 나타냄.
- 반면, ‘불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는 6.5%(전혀 필요하지 않다 0.8% + 별로 필요하지 않다 5.7%)에 불과함.

〈 민간단체 활동 지원 필요성 〉



-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성과 사회적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집단이 민간단체 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 공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의 민간단체 활동 지원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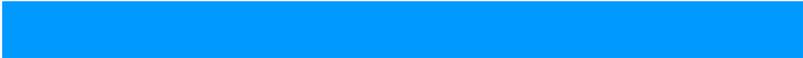
〈 사회적 인식에 따른 민간단체 활동지원 필요성 〉

민간단체 지원 필요성(%)		필요(A+B)	매우 필요(A)	필요하다고 봄(B)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
심각성 및 위험성 인식						
심각성	심 각	93.2	29.2	64.0	5.4	0.8
	비심각	91.7	26.7	65.0	7.3	1.0
인식정도	인 식	93.9	28.7	65.2	4.9	1.0
	비인식	91.9	28.6	63.3	7.0	0.6

응답자 특성별 분석

- 마약류 및 약물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의 민간단체지원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는 여성(94.1%), 30대(95.3%), 서울(97.2%) 및 광주/전라(96.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이상 93.5%), 주부(94.4%), 소득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반면, 남성(8.1%), 대전/충청(12.2%), 학력이 낮을수록, 블루칼라(9.2%)에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견해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사례수	매우 필요	대체로 필요	별로 불필요	전혀 불필요	무응답	필요	불필요
<b>전체</b>		<b>1,000명</b>	<b>28.4%</b>	<b>64.5%</b>	<b>5.7%</b>	<b>0.8%</b>	<b>0.6%</b>	<b>92.9%</b>	<b>6.5%</b>
성	남자	493	25.8	65.9	6.9	1.2	0.2	91.7	8.1
	여자	507	31.0	63.1	4.5	0.4	1.0	94.1	4.9
연령	20대	215	25.6	67.4	5.6	1.4	0.0	93.0	7.0
	30대	236	33.9	61.4	3.8	0.4	0.4	95.3	4.2
	40대	228	28.5	63.6	6.6	0.9	0.4	92.1	7.5
	50대이상	321	26.2	65.4	6.5	0.6	1.2	91.6	7.2
지역	서울	218	36.2	61.0	1.4	0.9	0.5	97.2	2.3
	부산/경남	165	23.6	71.5	3.6	0.6	0.6	95.2	4.2
	대구/경북	109	11.9	75.2	11.0	0.0	1.8	87.2	11.0
	인천/경기	275	36.4	55.3	6.9	0.7	0.7	91.6	7.6
	광주/전라	103	14.6	81.6	3.9	0.0	0.0	96.1	3.9
	대전/충청	98	30.6	57.1	9.2	3.1	0.0	87.8	12.2
학력	강원/제주	32	25.0	62.5	12.5	0.0	0.0	87.5	12.5
	중졸이하	180	23.9	66.7	6.7	1.1	1.7	90.6	7.8
	고졸	355	26.8	66.5	6.2	0.3	0.3	93.2	6.5
직업	대재이상	465	31.4	62.2	4.9	1.1	0.4	93.5	6.0
	화이트칼라	177	26.6	65.5	6.8	1.1	0.0	92.1	7.9
	블루칼라	87	23.0	66.7	6.9	2.3	1.1	89.7	9.2
	자영업	172	29.7	64.0	5.2	1.2	0.0	93.6	6.4
	주부	356	31.7	62.6	4.2	0.3	1.1	94.4	4.5
	학생	107	29.0	63.6	7.5	0.0	0.0	92.5	7.5
	무직/기타	101	21.8	69.3	6.9	1.0	1.0	91.1	7.9
소득	100만원이하	114	24.6	64.9	7.0	0.9	2.6	89.5	7.9
	101-200만원	141	20.6	70.2	7.1	0.7	1.4	90.8	7.8
	201-300만원	248	27.0	66.5	5.2	1.2	0.0	93.5	6.5
	301-400만원	187	28.9	64.2	6.4	0.0	0.5	93.0	6.4
	401만원이상	173	38.7	55.5	4.6	1.2	0.0	94.2	5.8
장기해외 체류경험	무응답	137	28.5	66.4	4.4	0.7	0.0	94.9	5.1
	있음	61	26.2	68.9	4.9	0.0	0.0	95.1	4.9
	없음	939	28.5	64.2	5.8	0.9	0.6	92.8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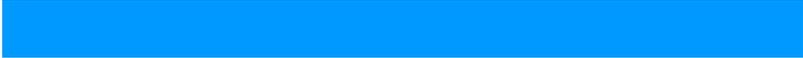


## 부록 1. 기초통계표





## 부록 2. 조사설문지



## 마약류 심각성에 관한 국민 인식도 조사

ID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월드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의뢰를 받아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향후 마약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시는 자료는 현 마약류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마약류퇴치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본 조사과정에서 알려진 모든 사항은 통계법 33조에 의거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고 오직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2월 월드리서치 연구팀**

### ■ 마약류 관련 문의시 안내 전화번호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문의처 : 02-2677-2245

#### SQ1. 응답자 현 거주지역 (※ 면접원 기재)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 SQ2. 지역크기(※ 면접원 기재)      ①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군/읍/면

#### SQ3. 선생님의 '연세'는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_\_\_\_\_세]

[▶ 12월 1일 기준 만20세 미만은 면접 중단]

#### SQ4. 성별 (※ 면접원 기재)      ① 남자      ② 여자

본 조사에서 '마약류 및 남용약물'이라는 말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와 같은 '마약류', 본드나 부탄가스와 같은 '환각흡입물질', 잘못 사용되는 '처방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 ①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인식

문1. 그럼, 우리 사회의 일반시민들은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위험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②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편이다  
 ③ 별로 인식하지 못하는 편이다      ④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⑨ (읽지말것) 잘모름

문2. 귀하께서는 개인적으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십니까?

- ① 매우 심각하다      ② 다소 심각하다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⑨ (읽지말것) 잘모름

**문3. 귀하께서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나 위험을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알게 되셨습니까?**

- ① TV나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해
- ②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 ③ 학교 등에서의 교육을 통해
- ④ 민간단체의 예방교육이나 홍보활동을 통해
- ⑤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 ⑥ 주변사람을 통해
- ⑦ 인터넷을 통해
- ⑧ 영화를 통해
- ⑨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 ② 마약류 및 남용약물 사용경험

**문4. 귀하 또는 귀하의 주변에서 병원 또는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제외하고, 제조업체와 제품명이 확인되지 않은 \_\_\_\_\_(와)과 같은 약물을 사용해 보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1) '피로 회복제'	1	2
2) '살 빼는 약'	1	2
3)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 유통되는 '술 깨는 약'	1	2
4) '머리가 맑아지는 약' 혹은 '근육을 키우는 약'	1	2

**문5. 조기유학생이 연2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조기유학생 대부분은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마약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기유학생들이 마약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마약류 예방교육의 의무화
- ② 학교에서 약물예방교육을 정규교과 과정으로 채택
- ③ 마약류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출입국 통제
- ④ 조기유학생 및 학부모의 자율에 맡김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문6. 만약 치료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마약류 중독 회복자가 같은 지역에서 생활한다면, 귀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이웃들과 함께 관심을 갖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
- ②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경각심을 갖고 어울리지는 않겠다
- ③ 이웃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겠다
- ④ 관심을 갖지 않겠다
- ⑤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 ③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활동 인식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로 마약류 예방 및 중독자 사회복귀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문7. 귀하께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의 활동과 관련하여, \_\_\_\_\_을 접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 마약류나 남용약물에 관한 예방교육이나 캠페인	1	2
2)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대중매체 광고	1	2
3) 마약류나 남용약물 예방을 위한 상담	1	2
4) 마약퇴치운동본부 홈페이지 방문	1	2
5) 중독자 재활을 위한 송천재활센터 및 재활교육	1	2

문8. 귀하께서는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약류 예방을 위한 홍보나 교육 사업
-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 마약류 관련 연구사업
- 마약류 중독자 치료 사업
-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 ④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 방지 방안

문9.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초.중.고 교과목 중 마약류 예방 교육시간 배당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마약퇴치 홍보 프로그램 방영
- 마약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 마약류 사용자 및 유통자, 제조자에 대한 처벌 강화
- 기타(구체적으로 기록) \_\_\_\_\_

문12. 귀하께서는 향후 마약류 및 약물남용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행정력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매우 필요하다
- 필요하다고 본다
-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통계처리 문항

DQ1. 선생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중졸 이하
- 고졸
- 대재
- 대졸 이상

DQ2. 선생님께서는 현재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 전문/자유직
- 사무/기술직
- 경영/관리직
- 판매/서비스직
- 일용/작업직
- 생산/운수직

⑦ (전업)주부

⑧ 대학(원)생

⑨ 자영업

⑩ 무직

⑪ 농림축수산업

⑫ 기타\_\_\_\_\_

**DQ3. 선생님을 포함한 선생님 닥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정기적인 수입과 함께 상여금이나 부수입 등은 12개월로 나누어 합산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① 70만원 이하

② 71-100만원

③ 101-150만원

④ 151-200만원

⑤ 201-250만원

⑥ 251-300만원

⑦ 301-400만원

⑧ 401-500만원

⑨ 501만원 이상

**DQ4. 선생님께서는 해외유학이나 장기출장, 해외지사파견 등을 비롯해서 6개월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경험이 있으신지요?** ① 있다 ② 없다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